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SLC센터는 공항에서 차로 1시간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택시로 20분 나가면 시내가 있다. 건물은 5층으로 된 숙소건물 하나와 일층에 식당이 이어져 있다. 또, 건물 앞에는 적당한 깊이의 풀이 있어서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건물이 크진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알차게 이루어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 방에 세명이 배정되었고 1명당 침대1, 책상1가 있었기에 개인공간으로 쓸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친구들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고 작은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바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본인 레벨에 맞는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하루에 4시간씩 그룹수업을 하였다. 나머지 4시간은 선생님과 1대1수업을 하였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기 위해 스피킹을 중심으로 나의 수준에 맞게 진도를 나가 주셨다. 그래서 더욱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때그때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고 어려운 단어들은 공부해오는 과제를 받았다. 개인선생님, 그룹선생님 모두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1주에 2번씩 Activity시간이 주어졌다. 한번은 두시간동안 교실에서 선생님 학생 모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게임과 필리핀문화를 알 수 있는 활동들을 하였다. 주말에는 요트타기, 수영하기, 수빅베이 투어등 야외활동 위주로 짜여 있다. 추가 비용은 특별히 많이 들지않고 식사값은 각자 지불하였</p>

	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비가오는 시즌이여서 그런지 예고없이 비가 많이 내렸다. 항상 우산은 필수로 소지해야 된다. 또 생각보다 많이 습해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엔 적응이 되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안전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었다. 한국보다 신호등이 많이 없지만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사람을 보면 바로 멈추기 때문에 매우 안전했다. 하지만 신호는 없어도 반드시 횡단보도로 다녀야 하며 무단횡단시 경찰관한테 걸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한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처음 묵었던 SLC센터는 엘리베이터는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도 5층까지 있던 저층건물이라 괜찮았다. 와이파이도 잘 되지만 가끔 안될 때도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규칙은 반드시 열시안엔 기숙사에 와야 하며 다음날 수업이 없을 경우에는 12시까지다. 예상치 못한 수도 문제로 2주차 부터는 홀리데이 빌라로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다. 기숙사 형태보단 호텔 같았다. 가장 좋았던 점은 전보다 숙소가 시내와 가까워졌고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하지만 방안에서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일층 로비와 프론트에서만 연결이 된다는 점은 감안해야한다.</p> <p>전반적으로 4주동안 머물기엔 큰 문제는 없어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p>
식사	<p>학교식당 (0)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은 한식으로 제공되며 가끔 반찬 하나씩 필리핀음식이 제공되었다. 한식이 나와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 매우 만족스러웠다.</p> <p>가끔 친구들과 시내로 나가서 식사를 한적은 있지만 학교식당은 주로 이용하였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 주로 택시를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다. 택시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고 가끔씩 기사님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교통은 대부분 차들이 서행하며 사람이 보이면 바로 멈추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교통비	10만원	택시비
식비	30만원	외부식당 이용
기념품	5만원	
자유경비	15만원	필요한 물건 구입, 문화체험
합계	6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덥고 습한 날씨와 비가 많이 오는 점은 알고가야 하며 숙소가 산속에 위치해 있기에 벌레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반팔과 반바지만 챙길 수 있는데 수업을 들을 때나 실내는 에어컨이 항상 작동해 있기 때문에 추울 수도 있으니 긴 옷도 몇 벌 챙겨가는 것이 좋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갑자기 달라진 환경으로 물갈이, 두통,감기 등 아플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비상약을 챙겨가야 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외국을 처음 나가보아서 처음엔 설렘과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아픈데 하나없이 잘 다녀온 것 같다. 연수를 가기전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고 항상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훌륭한 지도아래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 매일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영어 스피킹이 향상되었다. 작년에 먼저 다녀온 친구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를 너무 잘했단 생각과 잊지못할 추억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인생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 이 연수를 시작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 앞으로는 영어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고 끈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주말 액티비티 활동 - 요트타기



같은 그룹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들



미나선생님과 외식



MMC 수상



수빅베이 투어때 같은 조 친구들